

한학기 동안의 유학생생활을 돌아보며

숙명여자대학교

최소영

안녕하세요. 한국의 숙명여자대학교의 최소영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한학기동안의 교환유학생생활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

2021년 10월부터 1년동안 일본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할 예정이었지만, 외국인 입국 금지가 지속되어 입국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교환 유학생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학기동안 유학생수업뿐만 아니라 전공인 정보과학과 수업도 들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본에 입국하지 못해 유학생수업이외는 듣지 못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도 교수님인 오구치 교수님의 도움으로 3개 정도의 정보과학과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IT공학이 복수전공이지만 항상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벅했습니다. 이에 과연 일본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수업과 비슷한 점이 많아 금방 정보과학과 수업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과학과 수업에서 가장 인상에 남은 것은 프로그래밍 환경이었습니다. 한국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IDE로 프로그래밍을 하지만, 일본에서는 terminal, cmd를 사용합니다. 개인적으로 처음 사용해보는 개발 방식이기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사용해보니 가볍고 편했습니다.

유학생 수업도 즐거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일본어연습3b'으로 관심있는 분야의 사람과 인터뷰를 하고 팜플렛으로 만드는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미래에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기에 강아지를 기르는 오차대 학생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을 물어보고 여러가지를 배울 수 있어서 매우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있었으면 더 다양한 수업들을 듣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되지 못해 많이 아쉽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일본에 입국하여 여러가지를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학기 동안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교수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지도 교수님인 오구치 교수님, 항상 저의 후리카에리시트를 읽어주시고 여러가지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유익한 수업을 준비해주시는 정보과학과의 아사이 교수님, 시이오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밝은 미소로 유학생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주시는 하기와라 교수님, 마츠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친구처럼 편한 수업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니시자카 교수님께도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感動の新発売！

日本語演習 3B

1 2022 January ¥850

“やりたいことは、諦めなくて挑戦した方がいい”
進路の手がかり、ジユンさん

“学生さんが喜ぶ顔を見られた時は、良かったなと思う”
夢への一歩、エヴァさん

“介護士の仕事で一番大事なのは待ってあげること。。。”
研究は順調、キングさん

“ペットとの経験を伝える”
深い話、ソヨンさん

ボーナス取材！
チェコ、ポーランド、韓国の新年は？



ボーナス取材

